

2025
VOL 22

KEDI BRIEF

발행일 2025. 11. 06.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고영선

편집 성과확산실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연락처 043-530-9231, 9237

‘교육·취업·일자리 데이터 연계’가 지역-대학 상생의 열쇠다¹⁾

- RISE 시대, 데이터 기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진단과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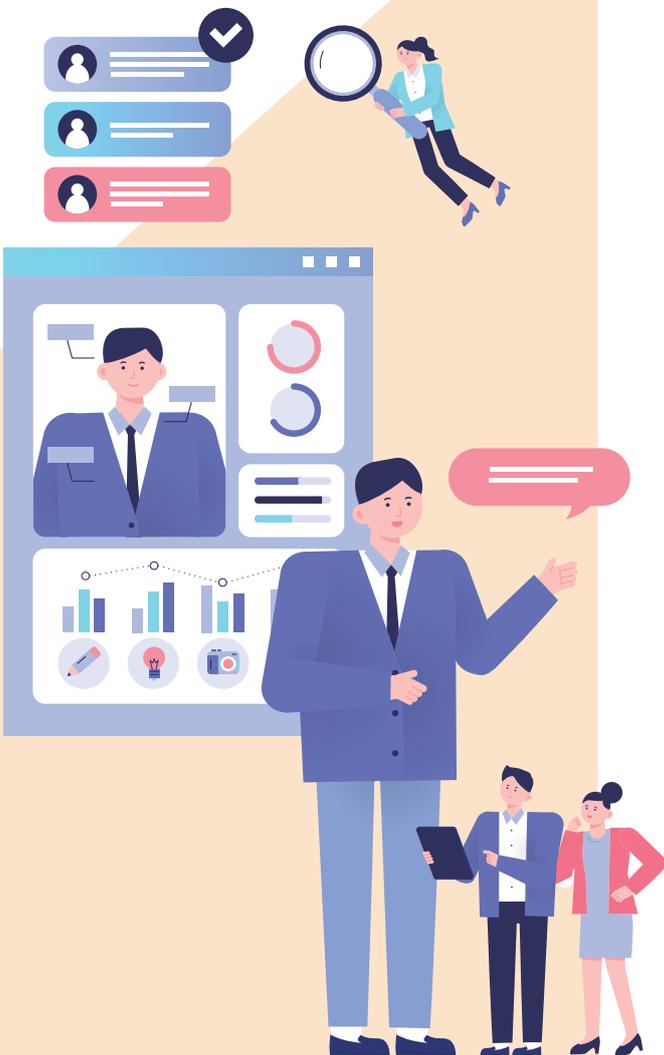
백 승 주 연구위원

RISE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역과 대학은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뛰어넘는 데이터 자원을 기반한 연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브리프는 데이터 관점에서 지역-대학 연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연구결과 대학 현장에서는 성공적인 지역-대학 연계를 위해 지역의 ‘취업 및 일자리’ 관련 데이터가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단에 기초하여, 학생의 교육 이력과 고용·정주 정보 연계에 기반하는 데이터 기반 지역-대학 생태계 구축과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안한다.

#지역-대학연계 #지역-대학 생태계 #데이터 플랫폼
#교육 데이터 #빅데이터

1) 본 브리프는 2024년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로 수행된 「지역-대학 연계 강화를 위한 데이터 실태 분석 및 활용 방안 연구」(백승주 외, 2024)을 바탕으로 작성됨.

www.kedi.re.kr



1. 왜 '데이터 기반 연계'인가

지속 가능한 지역-대학 연계
핵심 매커니즘으로
데이터 자원 활용 필요

2025년, 지역이 주도하고 대학이 지역 발전의 핵심 주체가 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전면 시행되었다. 이는 심화되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학이 지역 성장의 '앵커 기관(anchor institution)'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대학은 이제 학문의 상아탑을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부여받았다.

- 하지만 지금까지의 지역-대학 연계는 주로 인적·물적 자원 교류에 한정되면서 일회성 사업이나 형식적 협력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데이터(정보) 자원'에 주목한다. 데이터는 지역과 대학이 서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며, 협력의 성과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 본 브리프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한 「지역-대학 연계 강화를 위한 데이터 실태 분석 및 활용 방안 연구」의 핵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관점에서 현재의 지역-대학 연계가 가진 문제점을 진단하고 RISE 시대의 성공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2. 현장의 목소리: 진단과 요구

지역과 대학이 창출해내는
공동의 성과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부족

가. 데이터 활용: '내부'에 갇힌 데이터

지역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역-대학 연계 데이터 활용은 여전히 대학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술 연구 동향과 정부 재정지원사업 계획서 분석에서 공통적인 문제로 확인된다.

- 첫째, 지역-대학 연계·협력과 관련된 120개의 학술 연구물을 분석한 결과, 약 60% 이상이 사례 분석, 면담 등 정성적 연구 방법에 활용하고 있었으며, 공개 및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양적 연구는 36% 수준에 그쳤다. 더욱이 양적 연구 방법을 채택한 연구물(51건)의 경우, 활용된 전체 데이터 108건 중 개별 기관의 집계자료와 통계청 등에서 공개된 행정통계 자료가 각각 26건, 25건으로 전체의 47.22%를 차지하였다. 한편, 대학의 비공개 내부자료나 대학 및 연구자가 직접 수행한 자체조사를 활용한 연구도 30%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공개된 자료를 재가공하는 수준에 그쳐, 지역과의 실질적 연계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표 1〉 지역-대학 협력에 관한 연구물의 분석 자료 유형*

(단위: 건, %)

구분		박근혜정부 이전 (발간일 기준: ~2016)	문재인정부 (발간일 기준: 2017~2021)	윤석열정부 (발간일 기준: 2022~2024)	소계
공개 기관	대학알리미 (고등·취업통계)	10(23.26)	5(12.2)	4(16.67)	19(17.59)
	대학재정알리미 (대학재정정보)	1(2.33)	1(2.44)	2(8.33)	4(3.7)
	통계청(행정통계)	10(23.26)	9(21.95)	6(25)	25(23.15)
	개별기관 집계자료	9(20.93)	10(24.39)	7(29.17)	26(24.07)
대학	내부자료(비공개)**	5(11.63)	8(19.51)	2(8.33)	15(13.89)
	자체조사***	8(18.6)	8(19.51)	3(12.5)	19(17.59)
소계		43(100)	41(100)	24(100)	108(100)
연구별 자료 유형 건수(평균)		2.22	1.85	2.00	2.02

* 지역과 대학의 연계·협력 관계를 다룬 국내 연구물 120건 중 양적 분석을 활용한 51건을 대상으로 활용 자료 유형을 구분함. 1개의 연구물에서 여러 자료를 활용한 경우는 중복으로 계산하였음.

** 내부자료(비공개): 대학 내부자료 중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의미함.

*** 자체조사: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하여 분석에 활용한 경우를 의미함.

※ 출처: 백승주 외(2024), p.73의 〈표 IV-5〉

- 둘째, 2024년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된 9개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²⁾, 대학이 제시한 ‘지역 연계 성과지표’의 73.4%가 측정을 위해 대학 ‘내부’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지역 연계 지표가 대학과 지역의 접점이 이루어지는 지점의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내부 자료보다는 대학 외부의 자료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대학과 지역의 연계 실태를 대학의 내부 자료에 기초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지역 연계 지표에 해당하는 세부 지표의 상당수가 교육과정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글로컬대학30의 실제적 목표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모델을 창출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성과지표가 대학 내부의 변화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 확인된다.

〈표 2〉 글로컬대학30 사업계획서 내 세부 지표별 활용 데이터 유형

(단위: 건, %)

구분		대학 내부자료**	대학 외부자료**		소계
			조정필요***	활용가능***	
지역연계 지표여부*	비해당	83(59.71)	19(13.67)	37(26.62)	139(100)
	해당	58(73.42)	7(8.86)	14(17.72)	79(100)
소계		141(64.68)	26(11.93)	51(23.39)	218(100)

* 2024년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된 대학들이 제시한 성과 지표 중 ‘지역과 대학의 연계를 통해 창출되는 성과지표’로 연구진이 구분함.

** 대학 내부자료는 대학 내부에서만 활용된 비공개 자료를 의미하며, 대학 외부자료는 대학이 아닌 외부기관이 수집·공개하는 자료를 의미함.

*** 조정필요는 대학 외부기관에 제공된 자료를 별도의 구분 및 재산정을 통해야만 활용가능한 형태를 의미하며, 활용가능은 현재 수준에서 공개되는 자료만으로도 산출이 가능하며 바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함.

※ 출처: 백승주 외(2024), p.78의 〈표 IV-9〉

2)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목표로 하는 글로컬 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대학-지역 연계 지표가 다수 제시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서의 분석을 통해 대표적으로 가용한 대학-지역 데이터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나. 현장의 목소리: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부족한 ‘일자리 데이터’

새로운 변화를 위해 대학 현장은 어떤 데이터를 가장 필요로 할까? 전국 대학의 핵심 보직자 및 실무자 473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취업 및 지역의 고용·일자리’와 관련된 데이터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요구도 분석(Borich) 결과, ‘지역 현안 대응 현황’, ‘지역 기업 기여 현황’, ‘고용 및 일자리 현황’, ‘기업-대학 연계 수요’ 등 일자리와 직결된 데이터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지역의 당면 과제와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지역의 인구구조 및 경제구조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높아, 지역 소멸 위기감이 데이터 요구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지역-대학 연계 강화를 위한 데이터 요구도 분석 결과(대영역별 요구도 1, 2, 3순위 항목)

대영역	소영역	항목	요구도 순위*	데이터 개선 필요**		
				공개 내용 확충	공개 수준 확대	자료 활용 개선
지역 인재	취업 현황	학생 유형별 중도탈락 현황	○			○
		내국인 학생 취업 특성 정보	●	●	●	◎
	창업 현황	학생 창업 특성 정보	◎			
자산 학연 협력	공간 장비 활용 현황	대학내 공간 활용 및 공유 자원 현황	◎		○	○
		지역내 공간 활용 및 공유 자원 현황	●	◎	◎	◎
직업 평생 교육	성인 학습자	성인학습자(성인친화형) 교육과정 운영 현황 및 실적	●	●	●	●
	재직자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현황 및 실적	◎	◎	◎	◎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교육과정 운영 현황	○	○	○	○
지역 현안 해결	지역 현안 대응 현황	지자체의 대학 지원 현황	●	●	●	●
	지역 기업 기여 현황	지역기업 채용 우대 현황	◎	○	◎	◎
		지자체-지역기업 연계 및 지원 현황	○	◎	○	◎
지역 기반 전략 수립	경제구조 및 현황	고용 및 일자리 현황	●	●	●	●
		지자체주요사업 현황	○	◎	◎	
	교육자원 및 현황	평생학습 수요	◎	◎	○	◎
		기업대학 연계 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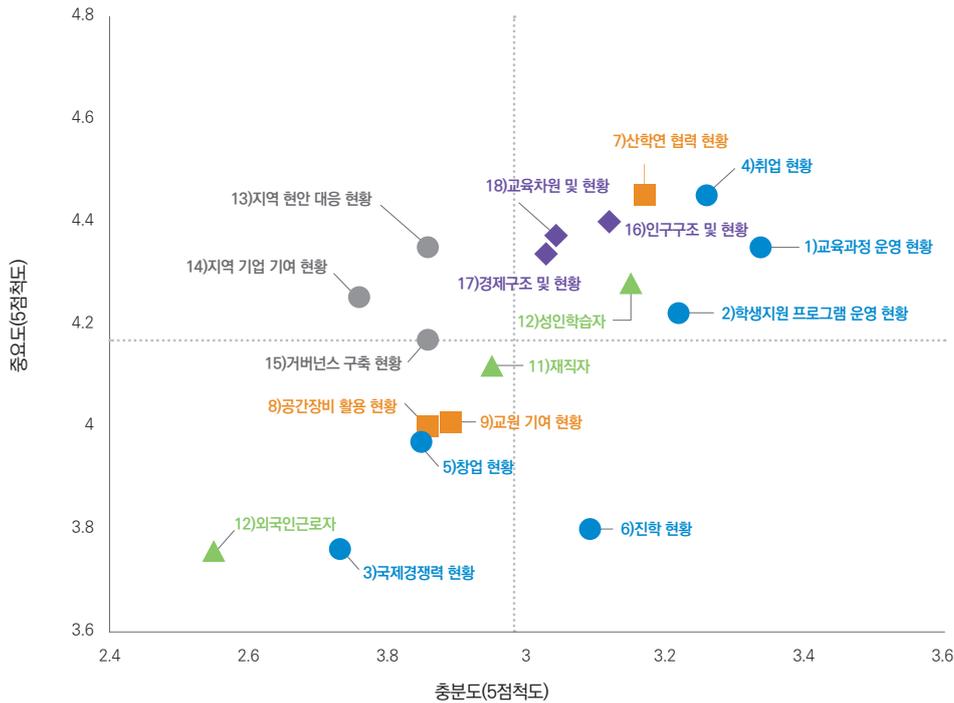
* 요구도 순위는 영역 및 세부 항목별로 중요도-충분도의 차이를 검증(T-검정)하고, Borich 요구도의 값을 산출 및 분석한 결과이며, 대영역별 1순위=●, 2순위=◎, 3순위=○로 표기함.

** 데이터 개선 필요사항은 각 항목별로 현재 공개되고 있는 자료의 개선 필요 사항의 우선순위(1순위=●, 2순위=◎, 3순위=○)를 의미함. 예를 들어 “공개내용 확충”의 ●으로 표기된 “내국인 학생 취업 특성 정보”는 해당 대영역에서 현재 공개되고 있는 내용의 확충이 가장 필요한 항목임을 의미함.

※ 출처: 백승주 외(2024), pp.195-196의 <표 V-36>의 내용을 축약하여 제시함.

- [그림 1]은 데이터 영역별 중요도-충분도 분석 결과이다. 그래프의 2사분면(중요도 ↑, 충분도 ↓)에 위치한 항목일수록 현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부족하여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지역 현안 대응’, ‘지역 기업 기여’, ‘경제구조 및 현황’ 등 일자리와 직결된 데이터 영역 대부분이 2사분면에 집중되어 현장의 갈등을 보여준다.

[그림 1] 데이터 중요도-충분도 분석 결과(전체)



※ 출처: 백승주 외(2024), p.119의 [그림 V-1]

다. 대학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모습

대학 현장이 원하는 데이터는 단순히 ‘취업률’과 같은 결과 지표만은 아니었다. 개방형 문항 분석 결과, 교육과 고용의 ‘과정’과 ‘연계’를 파악할 수 있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현장에서 시급히 요구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지역 산업 수요 데이터) 지역 주력 산업의 구체적인 직무 요구도, 기업별 필요 역량, 중장기 채용 계획 등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상세 정보
- (졸업생 추적 데이터) 졸업생의 지역 내 취업 현황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일자리를 유지하는지(유지취업률), 그리고 계속해서 지역에 거주하는지(지역정주율)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

- (교육-취업 연계 데이터) 학생이 이수한 전공 및 비교과 프로그램이 실제 취업한 직무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연계 데이터

[그림 2]는 ‘지역 인재 양성’ 영역에서 새롭게 수집을 요구한 데이터의 핵심 키워드를 시각화한 것이다. ‘과정’, ‘취업’, ‘정주’, ‘지역’, ‘산업체’, ‘일자리’, ‘연계’ 등의 단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현장의 요구가 ‘교육-취업-정주’의 연계 데이터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수집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 출처: 백승주 외(2024), pp.141-171의 [그림 V-9], [그림 V-14], [그림 V-24]

3. 새로운 비전: 데이터 기반 지역-대학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

교육-취업-일자리 데이터 연계 및 공유 활용 기반 구축으로 RISE 성공적 안착 지원 필요

RISE 시대의 성공은 지역과 대학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데이터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대학 현장은 지역의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싶어하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과 고용을 잇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로 여기고 있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 (과제 1) 현장의 가장 큰 요구는 교육-고용 연계 데이터로 풀이된다. 따라서 학생 개인 단위의 데이터를 종단적으로 연계하는 핵심 플랫폼(가칭, 국가 고등교육 인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입학, 재적, 수강 정보)와 졸업자 취업통계, 나아가 고용보험 자료 등을 가명정보 결합 방식으로 연계하여, 학생의 ‘교육 이력부터 초기 경력까지’의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공유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수집과 공개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를 통해 수집되는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 조사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연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지역과 대학이 데이터 기반 정책개발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과제 2)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플랫폼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생산과 활용에 대한 각 주체의 책무가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장이 지역인재의 육성과 취업, 정주 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수집·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정부 및 교육 관련 데이터 수집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데이터 공개 범위와 데이터 공개 관련 규제(예: 데이터 공개 거부 제한)를 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데이터 플랫폼과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참고문헌

백승주 외, (2024) 「지역-대학 연계 강화를 위한 데이터 실태 분석 및 활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24-23

KEDI
BRIEF

www.kedi.re.kr